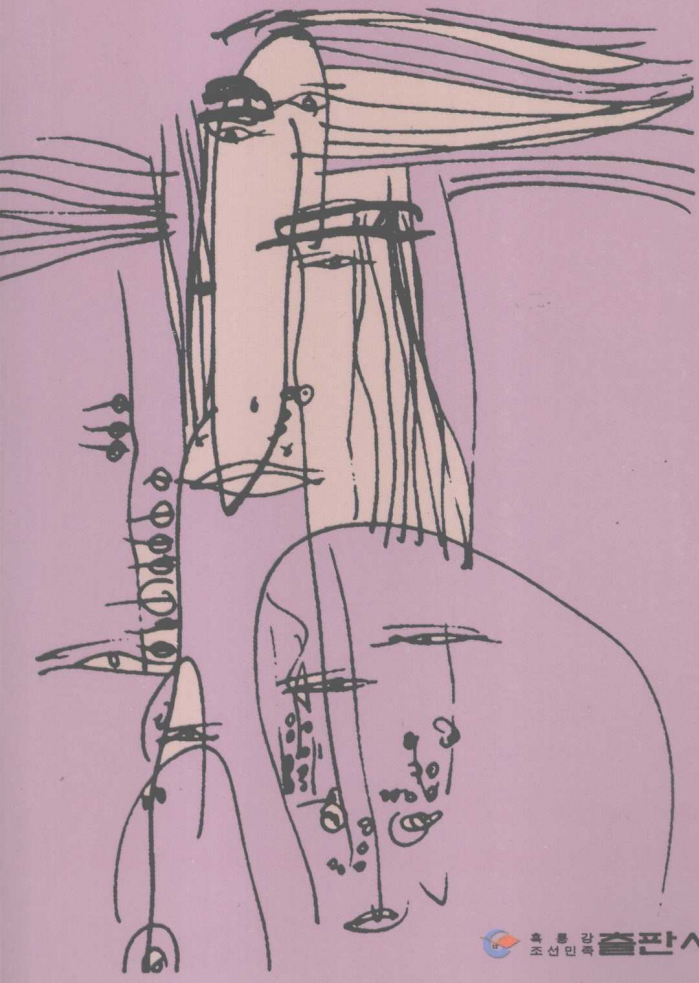
2001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음모와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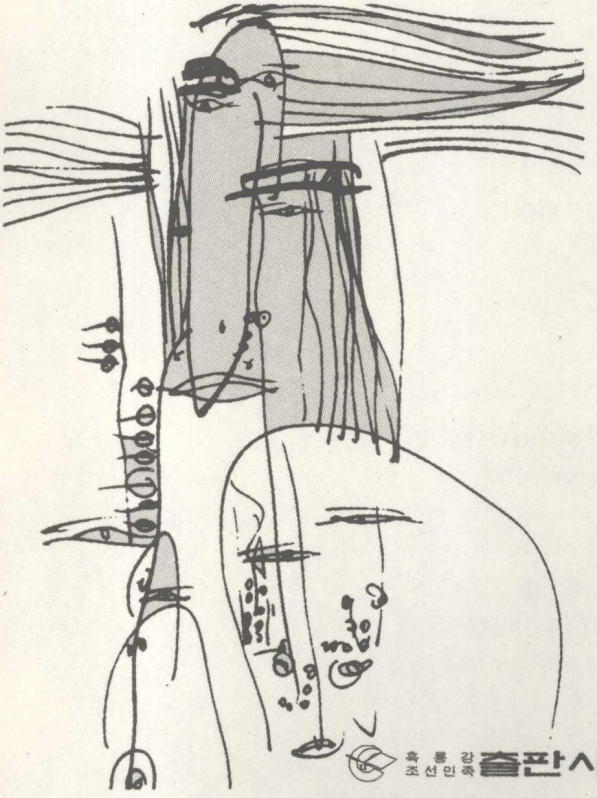
지오저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2001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음모와 사랑



지오저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阴谋与爱情：朝鲜文／迟悟著.—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7.9
ISBN 978-7-5389-1465-8

Ⅰ.阴… Ⅱ.迟… Ⅲ.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I247.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7）第 147316 号

书　　名/ 阴谋与爱情
著　　者/ 迟　悟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刘相海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长春市时风彩印有限责任公司
开　　本/ 880mm × 1230mm　1/32
印　　张/ 9.625
字　　数/ 230 千字
版　　次/ 2007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65-8（民文）
定　　价/ 15.00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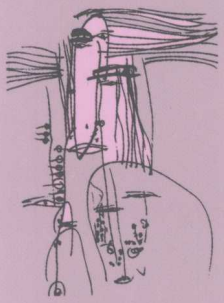
본명 김창수, 1955년 림구현 오성향 반원촌에서 출생.

1970년 북홍촌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 농사업에 종사.

1981년부터 작품 발표, 장편소설《약속의 땅》,《한》,《꿈속에서 깨여나면 또 꿈이다》, 중편소설《선택》,《물 없는 천지》등 다수 발표.

흑룡강신문《진달래》소설상,《송화강》잡지 계관상 등 수상.

연변작가협회 회원, 흑룡강성작가협회 회원.



토지개혁으로부터 대약진시기의 다사다난했던 중국조선족농촌사회를 생동하게 그린 소설.

조화로운 인문환경과 파괴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린 재미나는 글들.

깨끗한 초탈의 이미지, 친근감을 주는 인간세태 및 정감의 시화, 휴머니즘이 숨쉬는 한 바구니의 향연.

간소한 필치와 풍부한 표현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고뇌 및 작가적 지향을 표현한 시집.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집을 구축하는 일

—머리말을 대신하여

남영전

오늘을 살고있는 현대인, 날이 갈수록 정신의 공허와 령혼의 고독으로 점점 더 곤혹에 빠지는것이 현실이고 추세이다.

지나간 한세기, 인류는 자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기적을 창조한 동시에 또 너무나 많은 굴욕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공구리성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의 잠재적인 지능개발에 대성공을 거두어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을 전례없는 고봉으로 이끌었다. 인류는 생존환경과 자아개발 과정에서 또 전례없는 자유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불안과 곤혹에 몸부림치고있다. 기계와 기술에 대한 과분한 의뢰는 우리 생명의 주체성과 원창력을 상실하고있다.

때문에 20세기 인류의 이러한 실정을 고민한 대철학가들은 인류의 정신의 집을 새로 구축하는 일에 혼신을 불태웠다.

예로부터 문학작품은 지자가 신령과의 대화와 자아와의 교류에서 탄생한 숭고한 정신의 세계, 정신의 집이라 하였다. 이 정신의 집은 생명력이 강하고 감염력이 크기에 심령의 안착처이다.

지금에 와서, 정신세계가 고갈되는 현대인에게 좋은 작품 하나 선사한다는것은 말라가는 심령에 생명수 한모금 부어넣어 생명의 활력소를 환기시키는 훌륭한 작업이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광주모드모아그룹 리성일리사장과 손잡고 설립한《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은 올해 제8회를 맞아 금년에 5명 수상자의 개인작품집을 합하면 지금까지 도합 43권의 작품집이 출판된다.

43권의 우수작품집,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규모있는 정신의 집을 구축한 셈이다.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이 8년을 견지할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리성일리사장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고 또한 심양우성전자유한회사 황원수사장, 그리고 길림성 로동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이며《길림신문》,《장백산》발전연구회 회장인 신봉철선생 등 유지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먹향기 풍기는 5권의 새책을 독자들께 선사하면서 재삼 리성일리사장, 황원수사장, 신봉철회장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이 책을 만드느라 로고가 많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여러 선생님들께도 사의를 표한다.

2007년 8월 19일
장춘에서

제1장

목단강시의 서안구는 해방전부터 조선족들이 집중해살던 곳이다. 그런 연고로 목단강의 조선족중소학교와 유치원, 병원, 문화관, 도서관 등 문화교육시설들이 다 여기에 있고 조선족들이 차린 상가와 기업들도 대부분은 여기에 있다. 해방전후부터 목단강에 살았던 조선족들은 방직공장, 목재가공공장 그리고 군수품공장이였던 북방기계공장 같은 큰 기업과 병원, 학교나 정부의 사업단위에 소속되여 단위 주택구역에 널려있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절대대부분이 서안구에 살았는데 거기에다 1980년대 개혁개방후 주위의 각 현과 목단강시 교외, 농촌에 살던 조선족들까지 여기에 집중되다보니 서안구는 가는 곳마다 조선글로 간판을 쓴 상가들과 기업들이고 거리에 나서면 조선말이 들려 마치도 연길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 때문에 서안구에 최근년간에 일떠선 몇개의 아빠트단지는 민족사회구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대대부분이 조선족주민이다.

도시바닥을 미끌어다니는 차들이 날이 갈수록 더 호화롭게 변해가는것과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도시의 용모도 밤을 자고나면 새롭게 변해가고있다. 하여 최근년간에 지은 집들은 모두다 장식이 호화롭고 내부설비가 구전하다. 작년에 준공하여 주민이 들기 시작한 안락소구역도 일반시민을 상대한 아빠트단지로서 대단한 호화주택은 아니지만 목단강시에서는 손꼽을만한 신식아빠트이다. 첫층은 옥내시장과 상점, 식당들로 북적거리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온돌식난방설비와 가스관

까지 갖춘 백평방메터좌우의 널직한 살림집들로 이루어진 이 층집들은 밖에서 보기에도 사치하다고 할 정도로 호화롭다.

단지의 철대문으로 큰 장백산표뻐스 한대가 들어오더니 2호아빠트앞으로 천천히 다가선다. 2단원앞에 서있는 경찰차들과 그사이에 빼곡이 박아선 구경군들을 피하여 뻐스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3단원앞에 멈춰섰다. 건장하게 생긴 30대의 운전수가 차문을 열고 담배를 꺼내며 뒤를 돌아보았다. 운전수뒤에 몰려앉았던 10여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 주춤 일어서서 2단원의 층계를 내다보고있었다. 거기에서 경찰 몇사람이 수갑을 찬 젊은 녀인을 앞세우고 나오고있었다. 퍽 이쁘게 생긴 이 녀인은 짧은 적삼에 짧은 치마를 입고있었는데 살까기에 너무 열중한듯 가냘픈 몸매나 가느다린 팔다리나 살이 적은 말쑥한 얼굴이나 병태에 가까울 정도로 허약해보이지만 제가 도리여 구경군이 된듯 고개를 들고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는 모양은 너무나 태연했다. 저렇게 아련한 녀자가 무슨 죄를 졌을가?

《아주머니, 3단원이지요?》

지금도 정신없이 밖을 내다보고있는 옥결이를 보고 운전수가 물었다.

《아니, 다 왔어요?》

옥결이는 허둥대며 3단원 현관문을 다시 내다보고 곁에 앉았던 로년이 되여있는 녀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고모, 여기가 맞지요?》

《옳은것 같은데…》

나이 많은 녀인은 다른 현관과 똑같은 3단원을 내다보며 얼떨떨하게 대답한다. 농촌에 살던 옥결이는 오늘 이 아빠트에 이사를 왔는데 두 녀인은 사흘전에 한번 와서 집을 보고 방안과 가구들을 닦아놓고 그날로 돌아갔기에 이렇게 떨떨한것이다. 다행히도 옥결이의 남편인 박철봉이가 여기에서 찾아보낸 뻐스운

전수가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시끄러운 일이 없이 목적지를 찾아온것이다.

《정숙이 아버지는 왜 안보여요?》

옥결이의 차문을 내려서며 2단원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으나 남편의 눈익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집안에 있는지 모르지.》

등뒤에서 고모가 말했다. 이 녀인은 옥결이의 고모가 아니라 시누인데 옥결이는 자기의 딸과 같이 고모라 부르는것이다.

《제가 가서 문을 열어야겠어요.》

옥결이는 손가방을 찾아들고 차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3층이예요.》

발판에 선대로 수갑을 찬 녀죄수를 다시 찾아보았지만 벌써 차에 올랐는지 죄수도 경찰도 보이지 않고 구경군들만 그대로 서있다.

옥결이가 3층에 뛰여올라가 303번의 문을 열자 트렁크와 보따리들을 든 남자들이 뒤따라 올라왔다. 모두다 옥결이네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사짐을 날라주고 집이나 알아둔다며 따라온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짐은 많지 않았다. 이 아빠트의 원주인이 집의 새 가구들을 그대로 두고 집과 한데 팔았기때문에 옥결이는 집에서 쓰던 가구붙이들을 마을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왔던것이다. 그리고 농촌에서 쓰던 그릇따위들은 도시에서 쓰지 못할것이 많았다.

《먼저 여기다 놓으세요.》

옥결이는 짐들을 받아서 옷보따리들은 큰 침실에 가져가고 책보따리들은 작은 침실에, 그릇따위며 주방용품은 널직한 주방바닥에 들여놓았다.

《야, 집이 좋구만!》

들어서는 사람마다 소리쳤다. 모두들 너무나 호화롭게 꾸려진 방안에서 신 신고 밟기를 저어하면서도 이방저방 들여다보며 혀를 찬다.

《이거 참, 궁전같구만!》

《돈이 적소? 15만이라는데.》

《정숙이 애비 없잖소?》

고모가 주방그릇들이 든 보따리를 안고 들어오며 묻는다. 옥결이는 얼른 짐을 받아서 주방에 들여놓고 나오며 대답한다.

《이렇게 일찍 오는줄은 몰랐겠지요. 저기는 옷이고 책들은 여기다 둬요. 고모는 여기서 짐들을 갈라줘요.》

옥결이는 말을 마치고 재빨리 달려내려갔다.

뻐스에는 이불보따리와 옷보따리 몇개가 남아있었다. 옥결이는 자기가 앉았던 걸상밑에서 큼직한 보따리를 끄집어냈다. 거기에 큰 알루미니움대야에 유리와 사기로 만든 공예품들과 현과 성의 우수교원으로 되여 받은 컵과 기념품들이 담겨있었다.

다른 짐들을 다 날라간후 옥결이는 보따리를 안고 뒤걸음질로 뻐스에서 내렸다. 그러자 운전수가 바로 앞에 마주서서 쳐다보고있었다. 일이 끝났으니 결산하자는 뜻인것 같다. 옥결이는 묵직한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고 미안스레 웃었다.

《저…남편이 아직도 안왔어요. 어떻게 약속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니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올 때 전화를 했으니까 인차 올거예요.》

운전수는 할수 없다는듯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실에 올라갔다.

옥결이가 허리를 구부리며 보니 웬걸 땅에 놓았던 보따리가 없다. 허리를 쭉 펴며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뒤에 건장하게 생긴 낯모를 사나이가 그 보따리를 안고 섰다가 벙긋 웃으며 례절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

《제가 들고 올라갑시다.》

《아니…괜찮아요…》

《이웃입니다. 갑시다.》

사내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기름한 얼굴에 높고 곧은 코마루, 짙은 눈섭아래 어글어글한 큰눈, 깊이를 알수 없는 호수 같은 눈에는 그윽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사내는 더 말도 없이 앞장서서 짐을 들고 올라갔다. 이웃이라니 아마 이 아빠트에 사는 사람일것이다. 철봉이와 아는 사이겠지?

옥결이는 그뒤를 따라 올라가며 슬렁슬렁 힘들지 않게 층계를 올라가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균형잡힌 몸매가 보기에는 크지도 실하지도 않은듯하지만 적어도 키가 180센치메터는 될듯하다. 그리고 눈부시게 하얀 적삼의 짧은 소매밑으로 드러난 팔뚝은 주먹 같은 살덩이를 덧붙인듯 불끈불끈 근육이 솟아있어 체조운동원같았다.

303번 문앞에 이르러 사내는 방에 들어서지 않고 열려있는 문에서 짐만 집안에 들여놓고 허리를 펴며 또 한번 가쁜한 이를 드러내며 벙실 웃었다.

《아니, 들어가세요. 애아버지가 이내 올건데…》

《전 볼 일이 있습니다.》

《이 아빠트에 사세요?》

《네, 이웃입니다.》

사내가 다시 눈웃음을 지으며 303번과 딱 마주앉은 301번의 문을 가리켰다. 이 301번도 옥결이가 사흘전에 왔을 때는 303번과 마찬가지로 《집을 사거나 세 맡을분은 전화를 걸어주십시오.》라는 종이쪽지가 붙어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니 이 사내도 어제쯤 이사를 왔을것이다.

《참, 이웃이군요. 좀 있다가 애아버지가 오시면 이 손님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할텐데 함께 내려가세요.》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내는 례절스럽게 고개를 숙여보이고는 제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층계를 따라 내려갔다.

《떠날 때 전화를 했잖아?》

고모가 초조한듯 물었다. 일군들은 응접실의 쏘파와 걸상에 제마끔 앉아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방안은 벌써 담배연기가 뽀얗다.

《한시간이면 도착한다고 말까지 했는데 여직 안와요. 운전수도 기다리는데…》

《참 말이 아니구나, 이사하는것보다 더 큰 일이 뭐야?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우. 들어오면 내가 단단히 말해야지. 멀쩡한 사람이지.》

주름투성이 녀인은 이방저방 서성거리는 운전수를 침울한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옥결이보다 더 성이 나있었다.

사실 옥결이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지만 고모는 동생이 이 집에서 자지도 않았다는것을 발견했던것이다. 한국에서 돌아와 두달이 되도록 친구를 만난다, 집을 산다 하면서 내처 목단강에 나와있은 철봉이는 요새도 집조를 바꾼다면서 이사하는데는 삐치지도 않고 그냥 시내에 박혀있었다.

시누이라지만 나이가 20여살이나 이상인 이 시누이가 옥결이에게는 부모처럼 미더웠다. 옥결이가 어릴 때부터 무척 사랑했던 이 시누이는 옥결이와 철봉이가 결혼한후로는 동생의 가정화목을 위해 신경을 적잖게 썼고 부부나 고부간에 조금이라도 티각태각하는 일이 있으면 동생을 타이르고 욕하면서 편애에 가까울 정도로 옥결이를 두둔했다. 시어머니 즉 고모의 친정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보면 마찬가지로 사정없이 문질러주었다.

열두시가 다되여간다. 옥결이는 차탁우에 전화를 들어보았으나 원 주인이 집을 비울 때 끊었는지 전화가 통하지 않는다.

여덟시에 집에서 차가 떠났고 여기에 와서 거의 세시간이 지났지만 철봉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점점 독이 오르는 얼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담배를 이어붙이는 운전수는 당장 시비를 걸것 같다.그럴수록 고모도 점점 더 초조하고 화가 치미는 상이다.

《애가 참 말이 아니다. 어디 보자.》

《내려가서 전화를 하겠어요.》

옥결이는 말하며 일어섰다. 이때 문이 열렸다. 방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문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들어온것은 철봉이가 아니라 조선족중학교에서 공부하는 딸 정숙이였다.

《벌써 왔어요? 고모도 왔어요?》

정숙이는 요란하게 떠들며 고모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고모는 다 큰 처녀로 숙성한 조카를 훑어보며 얼굴이 밝아졌다.

《이눔 자식, 인젠 시집을 보내야 되겠구나!》

《난 시집을 안가요.》

정숙이는 소리치며 이칸저칸 들여다본다.

《야, 고향어른들은 몰라서 인사를 안하니?》

엄마의 말에 정숙이는 주춤하더니 손님들앞에 와서 허리를 굽힌다.

《안녕하세요?》

《얘가 이렇게 컸구만.》

《정말 시집갈 때가 됐구나.》

그 말을 듣고 머쓱해진 정숙이를 보고 마을사람들이 롱을 한다.

《철부지예요. 어릴 때는 시키지 않아도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곧잘 했는데 크면서 저러잖아요?》

《엄마, 책들은 제 방에 두어요.》

《그래, 그래, 이따 보자.》

전번에 옥결이가 집보러 왔을 때 따라왔던 정숙이는 벌써 해빛이 제일 잘 드는 침실을 제 방이라고 정해두었고 제일 좋은 테블과 제일 비싼 의자를 제 방에 갖다놓았다.

《벌써 왔구만!》

이때에야 철봉이는 들어오며 요란스럽게 떠든다.

《일이 있어서 그만…모두들 수고했소. 누님도 오셨소?》

《너 참 잘하는구나.》

부지런히 설레발을 치는 철봉이를 노한 얼굴로 지켜보며 고모가 벼르고있었다.

《운전수가 세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빨리 결산을 하고 이분들 모시고 가서 점심을 대접해요.》

《참, 여직 식사도 안했소? 당신이 모시고 대접해도 되겠는데…자, 빨리 내려갑시다.》

《저 301번 나그네도 짐을 날랐는데 같이 내려가요.》

《저 집말이야? 저 집에 사람이 들었어?》

철봉이가 놀란 소리를 하며 나갔으나 이내 들어왔다.

《사람이 없구만. 언제 왔는지 사람이 든것 같구만.》

철봉이가 손님들을 재촉했다.

《자, 빨리 가서 식사들 합시다. 이게 어느 때요? 운전수도 같이 가기요.》

방안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갔다. 고모가 그냥 남아있는것을 보고 옥결이는 재촉했다.

《빨리 내려가세요.》

《넌 안갈테야? 같이 점심을 먹어야지?》

《난 배고프지 않아요. 정숙이도 고모하고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학교 가라.》

《그럼 나도 안가겠다. 우리는 국수나 사다가 여기서 먹자.》

고모가 쏘파에 주저앉으며 정숙이를 보고 말했다.

《오후에 기어이 돌아가신다면서요? 빨리 가서 잡수세요.》

옥결이는 고모의 잔등을 마구 밀어보냈다.

조용해진후 옥결이는 할 일을 생각해보며 잠간 섰다가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먼저 정숙이가 볼 책들과 쓸 물건들을 제방이라 이름지은 방에 가져가고 자기가 쓰던 교수참고서적과 교육학에 관한 서적들은 다른 침실에 가져갔다. 큰 침실과 《자기방》이라고 한 작은 침실밖에 또 일인용침대를 놓은 작은 침실이 있었는데 여기다 많은 짐들을 놓았다. 옥결이는 앞으로 이 방을 서재로 쓸 생각이였다. 여기가 큼직한 책장이나 하나 놓고 의자 몇개에 테블 하나만 놓으면 될것이다. 광선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정숙이 차지한 침실보다는 못하지만 보배딸한테는 무엇이나 우선권을 주는데 습관이 돼있었다.

옮길 짐은 많지 않았다. 랭장고, 세탁기, 텔레비죤, 샤와기 같은 명표전기제품으로부터 침대, 테블, 쏘파, 차탁과 의자들 지어는 주방용품까지도 모두가 원 주인이 쓰던대로 남겨두고갔으므로 그대로 쓰면 되는것이다. 이 집의 가구들이 남이 쓰던 물건이라 께름직한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다 사서 일년도 쓰지 못한 새것대로였고 거의 다가 수입제로 목단강에서는 손꼽을수 있는 명표제품이다.

이 집의 원 주인은 부부가 한국에 가서 백여만원을 벌어온 사람이라고 한다. 돌아와서 2~3년을 두루 쓰고 작년에 이 집을 사고 들었는데 일년도 못되여 돈이 딸려서 드디여는 이 집을 내맡기고 친구에게서 15만원을 꿔가지고 부부가 다시 한국에 나갔다고 한다.

짐을 다 옮겼으니 이제는 방을 깨끗하게 닦으면 될것이다. 옥결이는 쏘파에 앉아서 잠간 숨을 돌렸다. 이때 맑은 음악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였다. 옥결이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선생님, 벌써 짐을 다 옮겼어요?》

《저…저…어서 들어오우…》

옥결이는 눈앞에 웃고선 두 녀인의 이름이 이내 떠오르지 않아 그대로 방으로 안내했다. 둘다 알락달락한 브래지어에다 배꼽까지 환히 보이는 엷고 투명한 적삼을 입고있었다. 하얀 바지는 다리에 감고 기워낸듯 같은 짧은 홀태바지들을 입었는데 앞으로나 뒤로나 둔덕과 골짜기가 벗은것과 다름없이 그대로 드러나있었다. 이거야말로 차라리 벗고다니지 이것도 바지라고 입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 환하구나! 이 집을 얼마에 샀어요?》

얼굴이 갸름한 미녀가 먼저 들어와서 방안을 둘러보며 부산을 떤다. 옥결이는 아직도 두 방문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그대로 대답했다.

《15만원이라던데…》

《15만원? 돈 벌었어요. 똑같은 집인데 301은 20만원이라던데요.》

녀인은 같이 온 얼굴이 좀 둥근 녀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집은 영복이네 돈을 15만원 꿔가면서 저당잡힌 셈이고 301번은 영복이 동생네 집이잖아. 이건 얼마를 받든 영복이는 15만원만 차례지니까 그렇게 팔아버린거야.》

《지금 이렇게 파는 집이 얼마나 많다구.》

조용히 말하는 두번째 녀자는 말수가 퍽 적은 녀자다.

《이쪽 302번이 화숙이네 집이다.》

《화숙이?》

《왜 〈사랑노래방〉을 차린 녀자 있잖아?》

《오, 이제야 생각나는구나! 순희, 저기는 영옥이지?》

옥결이는 손벽을 치며 소리쳤다.

《아니, 여태 몰랐어요?》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